

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공감

소위 비공개 회의... 대통령은 외치·국무총리가 정부 운영

민주당 “합의는 아냐”... 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 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8일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의견을 모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데 소위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9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어떤 형태로 가는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효상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자평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는

대신 들어설 새로운 권력구조는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가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본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 사실상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가 채택한 이 제도는 대통령이 선거로 뽑히되 외치(外治)만 담당해 국가수반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며,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가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인 독일식도 일부 거론됐지만 순수 내각제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제에 동의한 의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여야간에 아직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다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개헌 합의가 다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형태와 관련해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준도 단계도 아니며,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문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는 것 자체가 문 전 대표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친문인사로 분류되는 박병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장을 나오면서 “이원집정부제는 헌법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선

동을 하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인호 의원이 김경협 의원 등도 개헌특위에서 (이원집정부제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소수파로서 별로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과 김 의원도 친문계 의원이다.

한편,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양원제 및 의원정수, 상시국회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일부는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의원 특권’으로 꼽힌 불체포특권은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연중무휴의 상시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300명인 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으며, 하원 240명에 상원 60명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온 손학규 “을 대선 野대野 대결”

광주·전남 언론 초청 토론회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권개혁회의 의장은 9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야권 대 야권 대결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의장은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주최로 광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경선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은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에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다”며 “후보를 내시도 안 되고 내더라도 결국 야권 대 야권 대결 구도로 선거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이어 “대세를 이룬다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패권 세력의 연장이 아닌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진정한 개혁세력이 대항마를 만들 것이고 국민의당이 그 중심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개혁세력과의 통합이 시작됐고 더 많은 개혁세력이 참여할 것”이라며 “3월에 정치적 박빙이 올 때



정치권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민주당 내 변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좌절적, 패배적 생각에서 나온 ‘어쩔 수 없으니 문재인’은 벗어나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가 되고 되겠느냐는 여론이 광주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온다”며 “문재인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마찬가지인데 탄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혼란이 올지 모르는 만큼 헌재에서 빨리 탄핵 결정을 해서 나라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참출통이지만 안 후보가 못 가진 민주화 운동과 개혁 전사로서의 경험을 제가 가졌다”며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김무성 ‘밀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긴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박대통령 흔적 지우기?

새 당명·정강·정책 확정...2012 대선 슬로건 ‘국민의 행복’ 삭제

새누리당이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바꾸면서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 연찬회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한데 이어 9일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만들어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2월16일 여의도 당사에서 한나라당 간

판을 떼고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강·정책의 제목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의 사랑’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첫머리에 언급된 ‘국민의 행복’을 삭제했다. 국민 행복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슬로건이었다. 대선 캠프의 정책 공약을 마련하는 기구도 ‘국민 행복추진위원회’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정강·정책의 강령에서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정강·정책에선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의식한 쇄신 노력을 반영했다.

김광림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과거에 사람 중심으로 돼 있던 당의 정강·정책을 가지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중심’이었다는 언급은 사실상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행복’이 지워진 대신 ‘국민통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강령 아래 10개의 기본정책을 제시했던 형태는 이번에 7가지 핵심 가치만 제시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7대 핵심 가치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공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다.

김 위원장은 “헌법적·보수적 가치와 국민 신뢰를 확산시키는 것을 강령에 담았다”며 “이에 기반해 앞으로 기본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7 대선 브리핑

천정배 지지모임 내일 출정식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천정배(광주 서구) 국회의원의 자발적 지지모임인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 광주전남 출발식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날 출발식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문병호 최고위원, 정대철 고문, 정균환 전 의원, 장병완·김광수·김관영·최경환·신용현·최도자·장정숙 의원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1부 출발식은 포럼 장립 경과보고와 장립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되며, 2부 행사는 천정배 의원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패널로 활동중인 민영성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출연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재야인사 장기표 대선 출마

재야인사인 장기표 (사)신문명정체연구원 대표는 9일 “불안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되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정치개혁,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정세 속에서도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민생복지,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성 11일 광주서 복콘서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성 고양시장이 오는 11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이 쓴 ‘나는 왜 대권에 도전하는가’ 복콘서트를 연다.

(재)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시장은 이날 복콘서트에서 자신의 정치적 멘토인 김대중 대통령의 운명적 만남과 관련한 비화를 공개하고 광주와 호남정신의 계승을 통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김대중 정신을 반드시 계승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입점 매 5억5천 (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학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480㎡ 매 9억8천 (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1462㎡ 매 10억3천 (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1441㎡ 매8억원 (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은열뜸,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들 이용 바랍니다.